

“시민을 지키는 도시락”

사람의 오늘이, 더 나은 내일이 됩니다.

경로당 어르신 식사지원 시범사업 참여센터를 찾습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이
경로당의 한 끼로 어르신의 건강한 오늘과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건강한 식사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건강한 노후를



따뜻한 관계

함께 먹는 밥으로
외로움은 줄이고



지역의 돌봄

이웃이 함께하는
돌봄 공동체로



지속가능한 모델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돌봄 체계로

01 공모 개요

사업명	2026년 「시민을 지키는 도시락」 경로당 어르신 식사지원 시범사업
공모대상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센터 (전국 센터)
선정규모	5개 기초지자체, 5개 센터
지원내용	센터별 8개 경로당, 약 8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5회 식사 제공 (식재료비, 운영비 등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23일 (12주)
사업지역	전국 5개 기초지자체
지원예산	조합 지원 예산 총 1억원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먹거리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 지원 - 경로당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강화

02 식사 공급 방식

지역	5개 기초지자체 (5개 소비자조합원센터 선정 예정)
인원	총 수혜인원 800명 예상 (지역별 8개 경로당(총 40개), 경로당별 약 20명 기준)
기간	12주 (2026. 11. 1. ~ 2027. 1. 23.) (주 5회분 공급 → 총 60회분, 특식 1회분 별도)
규모	총 48,800식 (특식 포함)
단가	1인 1식 4천원 (식대 2천원 + 지자체 포괄보조금 2천원, 조합 지원금 2천원)
형태	기본 : 일반찬 별크 공급 (특식 1회는 별도 형태 가능)

03 참여 기관 선정

선정 방식	제출 서류 심사
심사 위원	이사 2인, 먹거리돌봄사업추진단 2인, 대표영양사 1인 (신청조합원의 포함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심사 항목	세부 내용	배점
사업 적절성	- 지역 특성 및 사업 여건의 적절성 - 고령인구 및 경로당 현황 분석(기준 식사지원 현황 포함) - 지역 문제 분석 및 사업 추진 필요성	10
사업 협력 체계	- 지자체 협의 현황 - 보건소·복지기관 연계 계획 - 프로그램 연계 계획	30
운영 계획	- 경로당 선정 계획 - 공동식단 및 사업 참여조건 반영 의지	20
전문성 및 공급 역량	- HACCP 등 위생 관리 체계 - 조리 시설 및 인력 확보 - 안전적 배송시스템	20
지속 가능성	- 시범사업 종료 후 운영 및 재원 확보 계획 - 향후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참여 계획	10
조합 기여도	조합 공동구매 참여율	10
총점		100

04 공모 일정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범사업 공모 안내	신청 및 접수	참여 기관 선정 심사	선정 결과 공지
사업 내용 및 공모 일정, 방법 안내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참여기관 선정 심사 (서류 심사)	선정 결과 조합원 공지
9/1(화)	9/1(화) ~ 9/30(수)	10/7(수)	10/12(월)

05 사업 참여 조건

1 지역 협의	지자체와 경로당 공급 및 예산 사용 협의, 경로당 선정 협의 등
2 식자재	사업 수행 시 조합 공동구매 이용 필수
3 식단	사업 공동식단 반영하여 공급
4 운영	제조-공급-현장 피드백 수렴 까지 전체 공급프로세스 이행
5 결과	사업 수행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수행 중에도 조합이 요청할 시 수행 결과 보고 제출)

06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9. 1.(화) ~ 9. 30.(수)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happydosirak@happydosirak.org) ※ 신청서 직인 날인 필수	문의 조합지원부 김도영 차장 02-6010-9006
---	--	---

경로당의 한 끼가
건강한 노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지역과 함께,
사람과 함께,
행복도시락이 함께합니다.

	행복도시락 정책브리프 경로당의 밥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을 지키는 도시락」으로 경로당 식사의 다음 10년을 묻습니다
---	--

우리 사회에서 경로당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촘촘한 고령자 생활 인프라입니다

경로당을 단순한 노인 여가시설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규모와 접근성을 보면 경로당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촘촘하게 형성된 고령자 생활 인프라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경로당은 6만9,260개소인 반면 노인복지관은 454개소입니다. 경로당이 노인복지관보다 약 153배 많습니다. 노인 1,000명당 시설 수도 경로당은 6.75개소, 노인복지관은 0.04개소입니다.

실제 이용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재분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률은 26.5%,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11.1%였습니다. 경로당 이용률이 노인복지관의 두 배를 넘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2024년 기준),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재분석 자료)

복지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고, 더위를 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고령자가 늘어나고 1인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가 보편화될수록 경로당의 의미는 더 커집니다.

이제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식사하고, 건강을

살피고,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돌봄을 발견하는 생활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밥’이 있습니다.

이미 경로당 열 곳 중 아홉 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은 경로당 식사의 현주소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줍니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경로당은 6만9,384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6만 1,483개소, 88.6%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식사 제공 일수는 주 3.5일입니다.

광주는 더욱 앞서 있습니다. 1,390개 경로당 가운데 1,340개소, 96.4%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균 제공일수도 주 4.0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경로당에서 밥을 먹게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떤 밥을, 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한 끼를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계와 돌봄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정책의 질문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도 ‘쌀 지원’을 넘어, 제대로 된 식사를 공급하는 ‘체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식사 확대는 단순히 쌀과 부식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에서 경로당마다 시설과 운영 여건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식사 확대뿐 아니라 노인의 건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식사의 질과 공급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

니다.

특히 급식지원 인력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현재 방식만으로는 **노인 맞춤형 영양식을 제대로 제공하기 어렵고**, 농촌에서는 급식인력 부족으로 이른바 ‘80대 노인 밥 당번’ 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구체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공동급식소를 활용한 전문적인 음식 조리·배달, 이동식 급식소 운영, 지역 식당·가게와의 연계를 통한 배식**”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마련하여 식사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제안입니다. 모든 경로당이 각각 조리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의 전문적인 조리·영양·위생·배송 역량을 활용하여 여러 경로당에 안정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지역 거점형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이 제안하는 ‘**먹거리돌봄 공공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제안입니다. 지역의 전문적인 먹거리 공급거점이 식사를 조리·공급하고, 이를 영양관리와 건강관리, 안부확인, 문화활동, 통합돌봄까지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경로당 식사지원을 ‘**선심**’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로 바라볼 것도 주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에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센터와 지역 식당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농촌에서는 공동급식·식재료 제공·장보기 대행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식사지원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경로당 식사정책은 ‘**몇 끼를 제공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식사를, 누가, 어떤 체계로 제공하고 이를 건강과 돌봄으로 어떻게 연결**

할 것인가’ 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행복도시락은 이번 「시민을 지키는 도시락」 시범사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처 및 참고 : 국회입법조사처, 구슬이,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의미하는 것」, 『이슈와 논점』 제2245호, 2024. 6. 12.보고서는 경로당 식사를 영양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원이 함께하고 있는 광주전남특례시 동구는 이미 경로당의 밥을 지역정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의 사례는 그래서 주목할 만합니다.

동구는 2026년 관내 127개 경로당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수·금 주 3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식사를 통해 고독감과 우울감을 낮추고 이웃 간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동구의회 자료를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을 별도의 민간위탁사업(광주동구자활센터 예비자활기업 수행)으로 운영해 왔으며, 어르신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사업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동구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경로당을 단순한 급식장소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화·여가·건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서 경로당을 식사·돌봄·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밥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모이면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면 건강과 돌봄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식사는 복지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의 역할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우리 조합원인 꿈헤비타트가 행정안전부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고령자 식사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고령자의 식사와 돌봄을 함께 해결하는 모델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서도 지역 확산을 위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복도시락이 준비하는 경로당 식사지원사업이 개별 조합의 실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준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반 지역돌봄 정책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해에는 독립운동 후손의 한 끼를 지켰습니다

「시민을 지키는 도시락」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지난해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와 함께 독립운동가 후손 어르신을 위한 영양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1억4천만원 규모의 영양도시락을 전국 행복도시락센터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당시 이로운넷은 이를 “독립운동의 정신, 도시락으로 잇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식단·영양·조리·위생·배송의 역량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시민을 지키는 도시락」의 출발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독립운동 후손의 건강한 한 끼를 지켰다면, 올해는 그 실천을 경로당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한 끼를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식사와 건강, 문화, 관계, 돌봄을 연결하여 경로당 식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행복도시락은 또 하나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의 조합원들과 함께 지난 20년 동안 도시락과 급식 현장에서 식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순한 조리시설만이 아닙니다.

영양사와 조리인력, HACCP을 비롯한 위생·안전체계, 식단과 레시피, 식재료 공동구매, 조리과 포장, 그리고 음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에 전달하는 배송체계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 그 역량을 **고령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의 사회공헌사업 「시민을 지키는 도시락」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 식사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내부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먹거리돌봄 체계를 만들고, 어르신의 건강과 식생활을 개선하며,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전국 5개 기초지자체, 5개 조합원센터를 선정하여 지역별 8개 경로당, **총 40개 경로당 약 8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주 5회 식사를 공급합니다. 특식을 포함하면 **총 4만8,800식**입니다. 1식 4천원 가운데 지자체 2천원과 조합 2천원을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성과는 **4만8,800개의 도시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하는 것은 ‘도시락’이 아닙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공동식단과 공동구매를 적용합니다. 계절별 순환식단과 고령자 맞춤식을 개발하고, 위생관리와 배송과정을 관리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보건소의 건강·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결합니다. 조합 역시 국회 토론회·시식회·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식사 → 영양 → 건강 → 문화 → 관계 → 돌봄의 연결이 실제 경로당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먹는 것이 고립을 줄이는지, 식사하러 나온 어르신에게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경로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는 곳’에서 ‘생활하는 곳’으로, ‘급식하는 곳’에서 ‘함께 먹는 곳’으로, ‘복지시설’에서 ‘마을의 돌봄거점’으로.

4천원의 밥을 4천원의 가치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한 끼 단가는 4천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4천원짜리 식사’가 아닙니다.

지자체의 2천원과 조합의 2천원에 보건소의 건강관리, 평생교육과 문화활동, 경로당이라는 지역공간, 대한노인회와 지역 복지기관의 관계망,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전문성을 더하면 한 끼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는 달라집니다.

공공의 자원과 지역의 자산을 연결하는 것.

사회연대경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서 돌봄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분야로 정하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활용한 돌봄모델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로당 식사는 그 정책을 국민의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영역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주 5일 경로당 식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광주 동구처럼 이미 지역의 경로당 식사를 공공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는 행복도시락과 같은 조직들이 자신의 자원과 비용을 투자하여 다음 모델을 실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각각의 움직임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할 때입니다.

정부에는 경로당 식사를 단순한 양곡·부식비 사업을 넘어 고령자 영양·건강·예방·관계·통합돌봄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회에도 제안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부식비·단가·인력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누가 전문적으로 조리할 것인지, 영양과 위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을 일률적으로 바꾸기 전에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소멸지역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경로당 먹거리돌봄 모델을 실증하는 국가 시범사업을 시작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과정에 지방정부와 노인회, 보건소, 복지기관, 사회연대경제조직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밥이 약이 되는 사회」, 경로당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의 이번 사업은 작은 실험입니다.

5개 지역, 40개 경로당, 800명의 어르신, 12주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작지 않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우리는 어르신의 한 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을 책상에서 먼저 만들지 않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어 보고, 영양사가 살펴보고, 조리하는 사람이 확인하고, 보건소가 건강을 연결하고, 지방정부가 지켜보고, 조합원들이 매일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면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밥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밥으로 사람을 지키는 정책으로.

경로당의 한 끼를 복지가 아니라 건강과 관계와 돌봄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으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시민을 지키는 도시락」을 통해 그 길을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촘촘한 고령자 생활 인프라입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노인 여가시설이 아닙니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노인복지시설로, 고령자의 식사와 돌봄, 사회적 교류를 위한 중요한 거점입니다.



1 시설 수 비교 (2024년 기준)

경로당이 노인복지관보다 약 153배 더 많습니다.



2 노인 1,000명당 시설 수 비교 (2024년 기준)

노인 1,000명당 경로당은 6.75개소, 노인복지관은 0.04개소입니다.



3 이용률 비교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경로당 이용률은 26.5%,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11.1%입니다.



“복지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이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4년 기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재분석 자료

이미 경로당 열 곳 중 아홉 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경로당 식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제는 '몇 끼를 먹을 것인가'를 넘어 '어떤 식사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1 전국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2024년 12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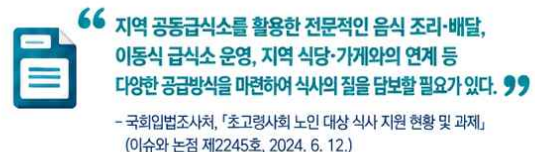
2 식사 준비의 현실적 어려움



3 식사의 질 관리도 필요합니다



4 국회도 '쌀 지원'을 넘어, 식사 공급체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 이제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밥을, 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한 끼를 어르신의 건강과 관계와 돌봄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경로당의 한 끼가
건강한 노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5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구슬이,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이슈와 논점 제2245호, 2024. 6. 12.)

이미 경로당 열 곳 중 아홉 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경로당 식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제는 '몇 끼를 먹을 것인가'를 넘어 '어떤 식사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1 전국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2024년 12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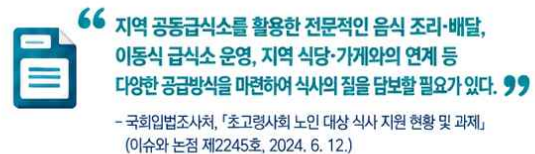
2 식사 준비의 현실적 어려움



3 식사의 질 관리도 필요합니다



4 국회도 '쌀 지원'을 넘어, 식사 공급체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 이제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밥을, 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한 끼를 어르신의 건강과 관계와 돌봄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경로당의 한 끼가
건강한 노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5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구슬이,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이슈와 논점 제2245호, 2024. 6. 12.)